

프로덕션 북

I. 스태프 및 배우 리스트

감독/각본/편집: 채명군(Cai Mingjun)
AIGC 감독: 평정이 (PengJingyi)
촬영감독: 장저정난 (Jiang Zhouzhengnan)
촬영 조수: 샤오텐 (Xiaotian)
녹음감독: 치우양 (Qiuyang)
조명 조수1 : 허우차오양 (Hou Chaoyang)
조명 조수2 : 푸바이 (Fu Bai)
미술: 장위쉬 (Zhang Yushuo)
스크립터: 덩안위 (Deng Anyu)
프로듀서: 위징 (Yu Jing)
제작 조수: 이이 (Yiyi)
딸 역: 장장 (Jiangjiang)
어머니 역: 천안허 (Cen Anhe)

II.스토리보드

S1: 계단실
S2: 회사 1층
S3: 류쭈오의 집 식당
S4: 류쭈오의 방
S5: 거실
S6: 강가

컷 번호	scene/shot	화면 내용	숏	숏	대화	음악/음향
1	S1 샷1	연필 하나가 공책 위를 미끄러진다	어깨 너머 샷, 약간의 흔들림	클로즈업		
2	S1 샷2	류쭈오가 카메라를 등지고 앉아 있고, 명찰은 복도 계단에 놓여 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샷, 고정	중간 근접 샷		
3	S1 샷3	류쭈오가 계단에 앉아 있다. 잠시 후 계단 뒤의 문이 열리고 한 남자의 발이 화면에 나타난다. 류쭈오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고, 그 동료는 비상구로 나간다. 문 밖에서 짐차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자, 류쭈오는 이어폰을 꺼내 착용한다. 그리고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데 몰두한다.	고정 이어폰을 끼는 순간 카메라가 천천히 zoom 인한다	전경	동료 A: 류저? 여기까지 와서 그림 그리는 거야? 류저: 응 동료 A: 퇴근 시간인데 안 가? 류저: 아, 좀 더 그럴 게 있어서 동료 A: 알겠어, 바쁘면 우리 먼저 갈게	
4	S2 샷1	류저우가 비상구에서 나온다		원경		
5						
6	S3 샷1	류쭈오가 슬리퍼를 신고 현관으로 돌아와, 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전화하는 소리와 요리하는 소리가 들린다. 류쭈오는 부엌을 지나며 어머니(엔리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완성된 요리를 한 번 쳐다본 뒤 고개를 돌려 계단을 올라간다. 엔리리는 손으로 그녀가 방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으라고 손짓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zoom	전경	엔리리 (O.S): 사요린, 한 가지 물어볼게. 14일 전에 생산 끝낼 수 있겠어? 화장품 포장 상자 주문 건인데, 고객이 재촉이 심해서 20일까지 필요하다고 하네. 류저우: 엄마, 돌아왔어요.	문 열리는 소리 요리하는 소리

7	S4 샷1	류쭈오가 방 문을 열고, 가방을 침대에 던진 뒤, 이어폰을 빼고, 그 자리에서 침대에 쓰러진다.	카메라 위치는 문 쪽	전경		
8	S4 샷2	류저우(카메라 정면), 침대 위의 책 《EAT LOVE》를 집어 들고 넘기기 시작한다. 전화벨이 울리고, 류저우는 휴대폰을 집어 든다	고정	중경		
9	S4 샷 3	류저(측면)가 침대에 누워 린즈와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고정	클로즈업	[주요! 주최 측 링크 보냈어] ~ [나 이따가 그쪽한테 말할게]	
10	S4 샷 4	【휴대폰 화면의 메시지】	고정	클로즈업	[짠! 주최 측 링크가 왔어] ~ [나 이따가 그 사람한테 말할게]	
11	S4 샷 5	휴대폰 화면에 새 메시지가 떴다. 【아줌마가 네가 이런 걸 하는 걸 반대한다고 생각하니?】, 그때 엔리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류쭈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휴대폰 화면에서 얼굴로 zoom 아웃	클로즈업	엔리리 (내레이션): 밥 먹자—	
12	S4 샷 6	류쭈오가 휴대폰에 【엄마가 허락 안 하실 거야, 내가 몰래 할게】라고 썼다가 지우고, 잠시 후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입력했다. 【나 이따가 엄마한테 말할게】	정면 샷	클로즈업	엔리리 (내레이션): 더 이상 안 오면 밥 못 먹어	
13	S4 샷 7	류쭈오가 침대에서 일어나다 (디자인 책자를 들고 나가다)		전경		
14	S3 샷 2	류쭈오(카메라에 등을 돌린 채) 식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다. 엔리리가 밥이 가득 담긴 두 그릇을 들고 다가와 그중 한 그릇을 류쭈오 앞에 놓은 뒤 자리에 앉는다. 식탁 위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리고, 엔리리가 휴대폰을 들어 답장을 보낸다. 류쭈오는 고개를 살짝 숙여 자신의 그릇을 바라본 뒤, 일어나 밥숟가락으로 가서 밥을 그릇에 담고 다시 자리에 돌아온다.	고정	중경		

15	S3 샷 3	엔리리(어깨 너머)와 류저우가 대화를 나누고, 엔리리가 오리 다리 한 조각을 집어 류저우의 밥그릇에 건넨다	(어깨 너머)	중경		
16	S3 샷 4	류저우(불쾌한 표정), 그릇을 치우고, 젓가락으로 엔리리가 건네는 젓가락을 막아내자, 오리 다리가 다시 접시 위로 떨어진다		클로즈업		
17	S3 샷 5	접시에 다시 올려놓고, 류저우가 "안 먹을래"라고 말하자, 엔리리가 계속해서 류저우에게 고기를 집어주다가, 류저우가 손으로 그릇을 가릴 때까지 계속한다	어깨 너머 고정	중경	류저우: 안 먹을래 ~ "그렇게 많이는 못 먹어"	
18	S3 샷 6	엔리리와 류저우(어깨 너머)의 대화	어깨 너머 고정	중경	엔리리: 설 연휴가 지나면 정사원이 되겠네 ~ 엔리리: 네가 말했잖아	
19	S3 샷 7	엔리리(어깨 너머)와 류저우의 대화		중경	엔리리: 새해 지나면 정사원이 되겠네 ~ 엔리리: 네가 말했잖아	
20	S3 샷 8	류저우와 엔리리가 잠시 침묵한 뒤 대화를 나눈다(측면), 모양이 기이한 꽃병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다 엔리리와 류저우가 대화를 나눈다 마지막으로 류저우가 아무 말 없이 식탁에서 일어나 떠난다	핸드헬드	중근경	류저우: 다음 주 화요일에 상하이에 다녀올게. ~ 엔리리 (오프 스크린): 어보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룸 예약 가능하신가요.....	
21	S4 샷7	(위에서 내려다보는 샷) 류저우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몸을 돌리고 무심코 책 한 권을 집어 들고, 꾸벅꾸벅	고정	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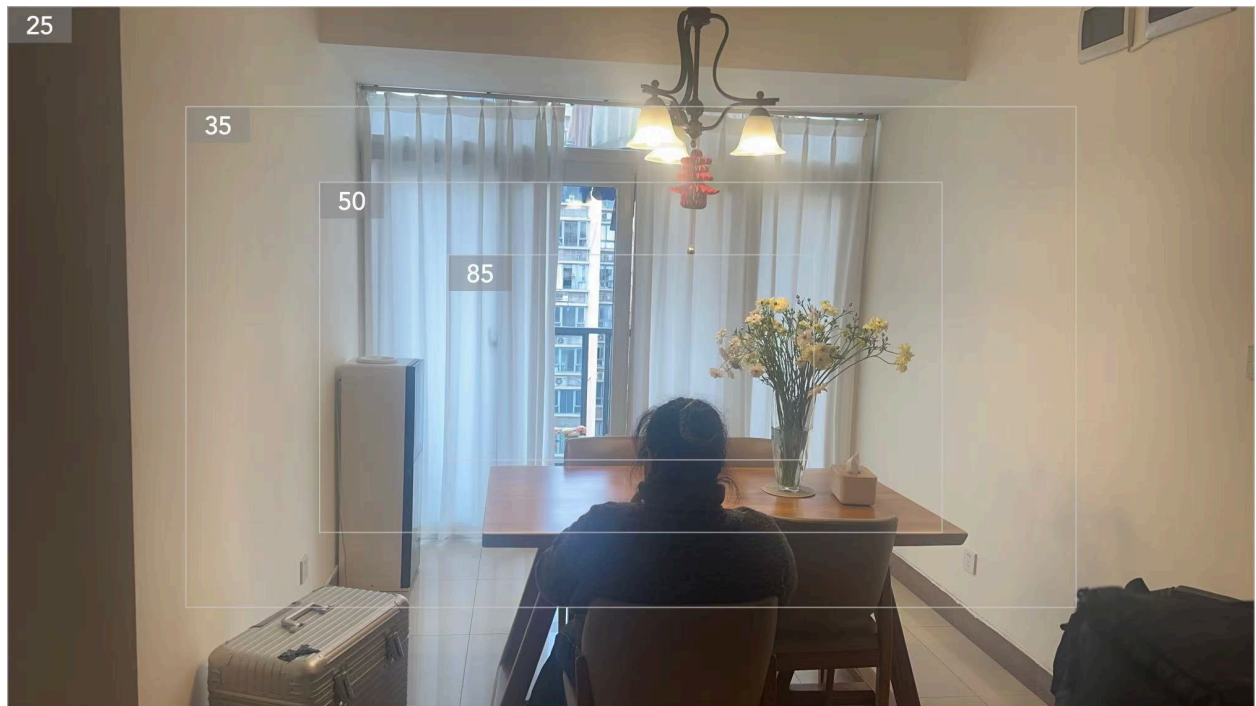
22	S4 샷8	류저우가 어릴 적 사진을 넘기다가, 강가에서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을 발견한다.	어깨 너머 핸드헬드	클로즈업		
23	S4 샷9	류저우가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사진을 들고 밝은 곳으로 가져갔다—>빈 화면	카메라 쫓아감	클로즈업		
24	S4 샷 10	류저우가 누워 천장을 바라보던 눈을 서서히 감는다.		전경		
25	S4 샷11	(측면) 류저우가 잠든 모습 → 눈을 뜨는 모습 조명 변화	고정	클로즈업	엔리리 (O.S)	황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
26	S3 샷9	류저우는 단정하게 처려 입고 가방을 메고, 손에 명찰을 든 체 거실 계단을 내려온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빵을 보고는 몸을 돌려 부엌 천장에서 우유를 꺼내는데, 그때 식탁 위에 놓인 자신의 디자인 노트를 발견한다. 그것을 집어 들고 자세히 살펴 본다	핸드헬드	전경		
27	S3 샷10	책자 위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134..... 인쇄소. 류저우는 손가락으로 세계 문질렀지만 지워지지 않았다		클로즈업		
28	S3 샷11	얼굴 클로즈업 (초조한 표정)				
29	S3 샷 12	류저우가 손으로 닦아보지만 지워지지 않는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신발을 갈아신다가, 신발을 갈아신는 도중에 화면 밖으로 나간다.	핸드헬드	중경		
30	S4 샷 12	화면 진입—> 흰색 봉투를 꺼내다				
31						
32	S5 샷 1	엔리리가 소파에 앉아 대화가 오간다	핸드헬드	중경	류진용 (O.S) ~ 끝	
33	S5 샷2	엔리리가 소파에 앉아 대화가 오간다	핸드헬드	클로즈업	류진용 (O.S) ~ 끝	

34	5-1	“류저, 왜 도망친 거야?!” 엔리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걸으면서 류저가 있는 쪽으로 걸어 갔다		정면, 중경, 쫓아가는 샷	
35	5-2	“류저우!” 엔리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걸어가며 류저우가 있는 쪽으로 향했고, 두 사람은 마주쳤다		측면, 전경	
36	5-3	엔리리가 등을 밟으며 류쭈오에게 다가가고, 류쭈오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본다. 두 사람이 마주치고 대화를 시작한다		어깨 너머, 중경, 추적	“왜 전화 안 받았어?” ~
37	5-4	두 사람의 대화		측면, 전경	“왜 전화 안 받았어?” ~ “뭐 하려고?” ~ “엄마.....”

38	5-5	대화		중경	“...할 말이 있어” ~ 그래서 나 갈게
39	5-6	대화 류쭈오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서 난 갈 거야”		특	그래서 난 갈 거야 ~ 엄마, 난 집을 떠날 거야.
40	5-7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류쭈오의 시선이 피하고, 엔리리		측면, 중	그 사직서 ~ 엄마가 평생 날 들볼 순 없잖아
41	5-8	엔리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가라”		등, 전경	“가세요”
42	5-9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정면, 클로즈업 (류저)	~ “오늘 이곳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알게 됐어”
43	5-10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		정면, 클로즈업 (엔 릴리)	“오늘 이곳의 물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어”

44	5-11	옌리리가 고개를 돌려 류쭈오를 바라본다		정면, 중경	“오늘 돌덩이 하나를 옮겨서 넣어 뒀어”
45	5-12	두 사람의 뒷모습		등, 전신	
46	5-13	공백—>류저우가 강가로 걸어간다		오른쪽으로 줌 아웃, 원경	
47	5-14	류쭈오가 강가에 다다르자 멈춰선다		정면, 중경	
48	5-15	강물 위, 돌을 던지자 물결이 일었다.		클로즈업	

장소 답사



Cadrage

2026年2月24日 14:32:28

Panasonic Lumix S5II | 5.9K (16:9) |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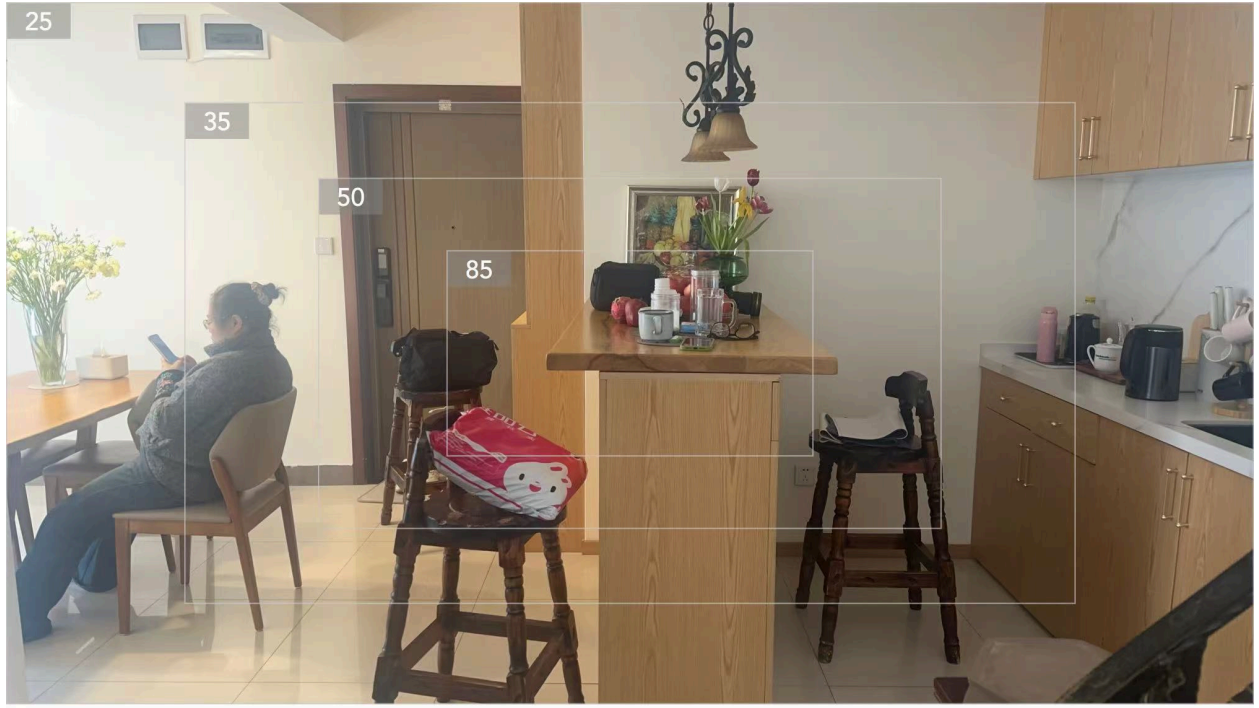
Generic Prime Lenses | 横向: 70.5° 纵向: 43.4° 对角: 78.1°

25-85mm

TILT
-9°

北
338°





Cadrag
2026年2月24日 14:32: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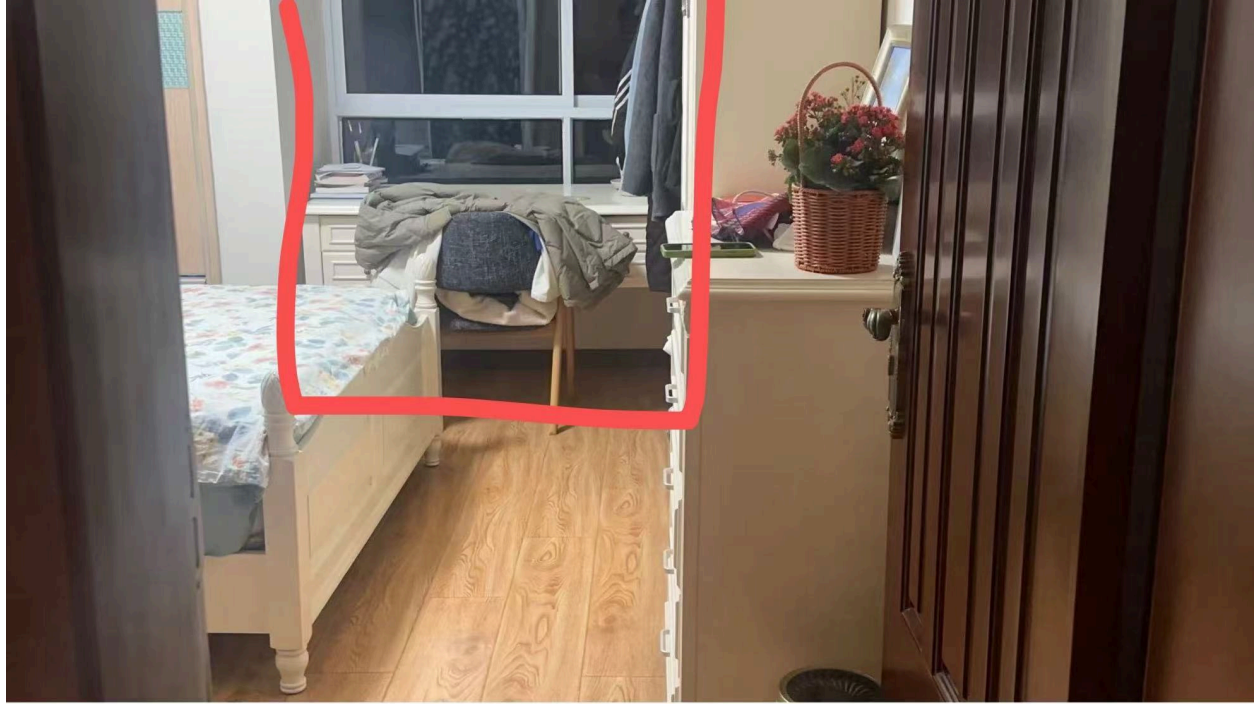
Panasonic Lumix S5II | 5.9K (16:9) | 16:9
Generic Prime Lenses | 横向: 70.5° 纵向: 43.4° 对角: 78.1°

25-85mm

TILT
-14°

东北
66°





Cadrage
2026年2月20日 21:51:30

Panasonic Lumix S5II | C4K (APS-C) | 16:9
Generic Prime Lenses | 横向: 49.8° 纵向: 29.3° 对角: 56.1°

25mm

TILT
-19°

西北
336°



Cadrage
2026年2月24日 14:26:45

Panasonic Lumix S5II | 5.9K (16:9) | 16:9
Generic Prime Lenses | 横向: 70.5° 纵向: 43.4° 对角: 78.1°

25-85mm

TILT
-44°

西
289°





Cadrage

2026年2月24日 14:27:57

Panasonic Lumix S5II | 5.9K (16:9) | 16:9

Generic Prime Lenses | 横向: 70.5° 纵向: 43.4° 对角: 78.1°

25-85mm

TILT
-28°

西
256°





Cadrage
2026年2月24日 14:28:08

Panasonic Lumix S5II | 5.9K (16:9) | 16:9
Generic Prime Lenses | 横向: 70.5° 纵向: 43.4° 对角: 78.1°

25-85mm

TILT 南
-19° 160°





Cadrage
2026年2月20日 17:12:47

Panasonic Lumix S5II | C4K (APS-C) | 16:9
Generic Prime Lenses | 横向: 49.8° 纵向: 29.3° 对角: 56.1°

25mm

TILT 西
4° 262°



III. 촬영 일정

촬영 기간: 2026. 02. 28. ~ 2026. 03. 01.

2.28		3.1			
A	B	C	D	E	
场	镜	次	景别	内容	
4-1	7	5 6	中→近	进门看书看手机	
4-2	8	3 4	近	看手机被妈妈叫	
4-3~4-6	9-12	2	特	手机信息	
4-7	13	2 3	近	关手机离开房间	
4-12	30	2 3	近	入画, 从抽屉拿出信封	
4-8	22	4 5	近	躺着, 从桌子拿照片	
4-9	23	2	特	翻面, 从相册拿出照片	
4-10	24	2	特	手拿照片, 照片滑落	
4-11	25	2 3	全	阳光照进房间	
4-11	5 (1)	2 3	近	睁眼	
3-9	26、29	3	中	拿牛奶, 看册子, 走去门口回来	
3-11	28	2	特	看册子, 人脸特写	
3-10	27	2	特	册子特写	
3-1	6	2	中, 摇	妈妈拿饭, 刘卓倒饭	
3-2~3-7	14	4 7	近	吃饭...上海	
3-8	20	4 7	近	侧面, 同上	
1-2	2	3	中	同事入境	
1-3	3	1 2	全	同事和刘卓对话	
1-1	1	2 3	特	画画	

2.28		3.1			
A	B	C	D	E	
场	镜	次	景别	内容	
5-1	32		中	严莉莉打电话	
5-2	33	2	特	同上	
(场记板5-16)		3	拉	正面, 严莉莉找女儿	
(场记板5-17)		2	中	背面, 严莉莉上楼找女儿	
5-16		1	远	刘卓背影	
5-2		1	全	严莉莉从山坡跑下来	
5-4		2 3	全	两人对话	
5-4		4	全	两人对话	
5-5		1	中	两人对话	
5-5		2	中	同上, 刘卓: 我要走了...	
5-15		4	特	石头泛起波澜	
5-3		2	特	两人倒影	
5-5		2	中	两人对话, 严莉莉: 我好久拴过你...	
5-5 (2)		5	中	正面, 两人对话	
5-5 (2)		1	中	同上, 刘卓: ...多深...投石头	
5-5 (2)		2	中	同上, 刘卓: ...多深...投石头	
5-12		1	全	两人背影	
5-12		2	全	两人背影	

IV 현장 사진:











V. 개인 코멘트

이번 졸업 작품을 준비하면서 기나긴 구상과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기에는 한정된 예산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시나리오 단계에서 리얼리즘 성향의 섬세한 감정선을 다루는 소재를 선택했습니다. 배우와 장비의 수요를 최소화하여 제작비를 절감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자원에 너무 얽매어 창작의 가장 핵심인 '표현 욕구'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본말전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 과정은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강가 장면입니다. 로케이션 헌팅 당시에는 환경이 매우 이상적이었으나, 촬영 직전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예정된 장소가 침수되면서 현장에서 급하게 대체 장소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촬영 과정이 매우 고되고 변수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과정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특히 배우의 연기를 지도하고 대사의 감정선을 깊이 있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창작의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도 뼈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촬영 장소가 너무나 익숙한 곳이라 방심한 나머지, 상세한 조명 도면과 카메라 배치도를 미리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조명을 설치한 후, 제가 원했던 구도로 카메라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처음부터 조정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귀중한 시간을 많이 허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무리 익숙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철저한 사전 준비 작업은 결코 생략할 수 없는 필수 과정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번 작품은 섬세한 감정의 흐름을 추구했기에 많은 양의 룩테이크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촬영 난이도를 크게 높였고, 특히 배우의 표현력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총평하자면, 비록 이번 작품에 부족한 점이 많을지라도 실사 촬영과 AIGC를 결합한 영상 시도나 룩테이크 등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작품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AIGC 요소를 최적화하고 색보정 디테일을 정교하게 다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힘내보겠습니다.